

‘역사화’의 방법으로 다시 읽는 최인훈

김도민*

[서평] 장문석(2025), 『최인훈의 아시아:
연대와 공존의 꿈으로 세계사 다시 쓰기』,
틈새의시간, 448쪽

1. 한국현대사 연구자로서 문학 읽기

서평 청탁을 받았을 때, 한국현대사 연구자임에도 망설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저자와 함께 5년 전쯤 한국냉전학회에서 발표하고, 『역사문제연구』에 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의 연구가 한국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책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기가 1960~70년대였는데, 마침 서평자 본인도 출간을 위해 마무리 중인 단행본의 시기와 대부분 겹쳐 있기도 했다.¹ 특히 저자는 이 책의 연구방법론으로 문학을 “역사화”(historicize)하여 새롭게 읽겠다며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960~70년대 후식민지 한국이라는 구체적 시공간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수행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책은 최인훈 문학을
‘역사화(historicize)’하여 새롭게 읽은 성과를 ‘작가’라는 형상으로 재구

*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1 이후 서평 내용에서 당대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은 출처를 따로 밝히지 않았으며, 10월 말 출간 예정인 다음의 책에 기반한 것임을 밝혀둔다. 김도민(2025), 『냉전의 진영 너머로: 남북한의 중립·비동맹·제3세계 외교(1948~1976)』, 역사비평사.

설하고자 한다. 이 책이 구성하는 ‘작가’의 형상은 ‘단단하고 단일한 주체’가 아니라, ‘시대를 표상하고 자기 내부에 타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장한 존재’이다. ‘역사화’는 문학 연구의 전통적인 세 영역인 작품론, 작가론, 문학사론에서 새로운 담론 생산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각 영역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책은 최인훈 **문학을 ‘역사화’**하여 텍스트의 재배치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문학사적 의미망을 구성하려고 한다.²(밑줄과 강조는 인용자)

저자는 최인훈을 역사적 맥락으로 읽어내기 위해서 그가 발표한 소설들을 시기순으로 배치하여 그것을 순차적으로 읽어내고 있다. 이는 역사가 ‘시간’을 강조하며 그것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즉 수정되고 가필되는 과정이 당대 시대를 담아내는 작가의 행위임을 포착하는 것은 문학 텍스트의 역사적 읽기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저자는 최인훈의 대표작 『광장』이 1960년 11월호 『새벽』 잡지에 처음 발표됐을 때, 주인공 이명준이 심사장에서 중립국을 세 번만 외쳤으나, 석 달 후인 1961년 2월 단행본으로 나온 버전에서는 아홉 번을 외치는 것으로 수정했음을 밝혔다.³ 이러한 최인훈의 수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당대 역사적 상황에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역사학의 연구방법론과 매우 닮았다. 수정과 가필뿐 아니라 최인훈의 소설 쓰기가 1930년대 식민지기 소설의 내용을 가져와서 ‘겹쳐 쓰기’를 했다는 것(특히 3장 2절을 참고)을 추적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소설가의 창작 과정이 어떠한 과거의 경험에서 연원하는지 밝혀내는 것도 역사학적 접근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역사화’의 방법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최인훈 소설이 당대 역사적 맥락이나 겹쳐 쓰기의 연원을 찾아내는 데서 그

2 장문석(2025), 『최인훈의 아시아』, 틈새의시간, pp. 37-38.

3 장문석(2025), pp. 65-68.

치지 않고, 다양한 인문사회서들과도 ‘겹쳐 읽기’를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최인훈 소설을 매개로, 당대의 맥락을 넘어 다양한 질문들을 사유하고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따라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도 시간순이 아니라 본론에 해당하는 2~4장은 각기 ‘아시아의 공간’, ‘아시아의 시간’, ‘아시아의 원리’ 등 주제로 배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의 제2장은 『광장』을 중심으로 한 1960년 4월혁명 이후부터 1961년 5·16 이전 시기를, 3장은 1960년대의 『회색인』과 『총독의 소리』를, 4장은 1970년대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태풍』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즉 일정하게 ‘시간’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서평자는 세 시기별로 제기되는 주요한 문제를 포착하고, 이것의 역사적 맥락에서 더 보충할 만한 것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서평은 책의 저술 목적으로 제시된 다섯 가지 중에서, 두 번째인 “최인훈 문학 창작의 배경이 된 20세기의 역사, 곧 식민지와 냉전이 이어졌던 동아시아의 역사”에 집중하고자 한다.⁴ 이것이 『광장』만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읽은 최인훈 문학의 문외한인 서평자가, 한국현대사 연구자로서 문학계에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2. 1960년, ‘중립의 광장’의 탄생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소설 「광장」의 탄생(1960년 11월)과 수정 발간(1961년 2월)이었다. 11월호 『새벽』에 실린 「광장」의 주인공 이명

4 저자가 밝힌 이 책의 다른 4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광장』의 작가 최인훈이 누구인지 알아본다.” “최인훈이 문학을 통해 만들어낸 인물들이 어떤 고민을 하였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최인훈의 문학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무엇을 꿈꾸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최인훈 문학의 역사적 맥락, 인물의 고민, 그리고 그 꿈을 살펴보면서 작가 최인훈이 남겨 놓은 유산을 살펴본다.” 장문석(2025), p. 32.

준은 ‘타고르호를 타고 중립국’ 인도로 떠났다. 사실 인도로 가는 포로 88명이 탔던 배는 영국함선 아스투리아스호(HMS Asturias)였으며, 당시 신문에는 어떠한 선박인지 보도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왜 최인훈은 중립국행 포로들을 ‘타고르호’에 태웠던 것일까? 저자는 1960년 새해 첫 호 『새벽』에 실린 인도 시인 타고르의 시에서 최인훈이 착안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최인훈은 1957년 이래 잡지 『새벽』의 기고자이자 독자였으며, “이명준이 오른 선박이 타고르호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설정은 그의 중립국행에 지구적 냉전을 넘어선 평화의 상상을 껴”치게 하는 효과를 의도했다는 것이다.⁵ 즉 냉전·분단·전쟁의 폭력적인 한반도를 경험한 소수의 포로들이 인도 민족해방운동의 전사였던 타고르의 이름을 붙인 배를 타고 이분법적인 냉전의 양극에서 불어오는 폭풍을 헤치며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양대 진영 너머의 평화로운 중립국 인도를 향해 가는 것이었다.

또한 타고르호를 타고 냉전의 파고를 건너는 중립국행 포로 이명준은 ‘중립국’(3번 등장)보다는 ‘제삼국행’을 더 많이 외쳤으며, 실제 중립국에 이르기 전에 바다에 뛰어들어버린다. “이명준의 제삼국 선택은 뚜렷한 지향의 결과가 아니라 갈팡질팡하면서 선택한 것”이었으며, “중립국이 중립의 이념을 뚜렷이 제시하는 개념이라면, 제삼국은 남북 양자가 아닌 다른 선택을 의미하는 유보적 개념”이었다. 즉 “1960년 11월 「광장」에서 이명준이 오른 타고르호의 목적지는 중립국과 제삼국이 혼재하는 것이었다.”⁶ 그런데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3개월 후 단행본으로 출간된 『광장』에서는 이명준이 심사장에서 중립국을 아홉 번이나 외치는 것으로 수정됐다고 한다. 최인훈은 왜 이러한 수정을 했던 것일까?

저자는 그 이유를 최인훈의 ‘광장’과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을 겹쳐 읽으면서 냉전기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과 지식의 트랜스내셔널한 공명

5 장문석(2025), p. 63.

6 장문석(2025), p. 65.

혹은 횡단에서 찾는다. 물론 최인훈의 광장에 대한 “보완의 과정은 일부 삭제한 초고의 복원일 가능성과 작품의 본의를 살리는 당대적 맥락의 증보일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⁷ 만약 후자가 그 이유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중립국행 포로의 선택과는 외려 달라진 측면이 있다. 이미 정병준이 밝혔듯이, 포로들은 중립국을 단호하게 선택했다기보다 다양한 욕망의 실현을 위해 남북한을 거부했으므로, 처음 『새벽』 잡지에 발표된 이명준의 ‘모호한’ 태도가 인도행 배를 탄 포로들의 역사적 실체와 더 일치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⁸

일본에서 활동하던 김삼규와 최인훈의 연결뿐 아니라, 저자는 ‘광장’이라는 용어와 의미가 일본 작가 홋타 요시예의 「광장의 고독」(1951년)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1960년은 4월혁명 이후의 남한과 안보투쟁이 한창이던 일본의 민중들이 ‘광장’에서 냉전 너머를 외치던 시기였다. 바로 이때, 약 10년 전 일본에서 출간된 홋타의 소설이 『새벽』 잡지의 편집자이던 신동문이 1960년 12월 15일 우리말로 번역하여 ‘세계전후문학전집 제1권’에 실었다고 한다. 또한 이듬해 최인훈의 「광장」이 김삼규가 일본에서 같은 제목으로 번역하여 도쿄의 잡지 『코리아평론』에 실음으로써, 당대 형성된 양국의 광장을 소재로 한 두 소설을 매개로 제시된 “‘공동의 광장’이라는 화두”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상상과 주체 구성”에 가능성을 열어주었다.⁹

여기에 서평자는 한 가지 보태고자 한다. 최인훈과 김삼규, 신동문이 “‘중립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공동의 광장’을 제안”¹⁰한 배경에는, 5년 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렸던 최초의 아시아·아프리카회의도 고려될 필요

7 장문석(2025), pp. 65-69

8 정병준(2018), 「중립을 향한 ‘반공포로’의 투쟁: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76인의 선택과 정체성」, 『이화사학연구』 56, p. 3.

9 장문석(2025), pp. 85-86.

10 장문석(2025), p. 86.

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둥회의는 냉전의 양대 진영 바깥에 서고자 하는 이른바 탈식민·탈냉전 평화를 지향하는 중립노선의 국가들이 주도한 회의였다. 특히 다수의 탈식민 신생 약소국들은 적대적인 냉전질서를 넘어 평화롭고 수평적인 국제질서를 만들고자 새로운 국제정치의 ‘공동의 광장’을 창출한 것이었다. 최인훈보다 조금 앞 세대인 리영희(1929년생) 기자도 반둥회의를 1965년 “아(亞)·아(阿)의 물결①: ‘유색(有色)’만의 공동광장”으로 명명하며 있었다.¹¹ 따라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상상과 주체 구성”의 가능성을 열어준 소설 「광장」의 탄생에는 1955년 반둥회의의 흔적도 있지 않았을지 궁금하다.

3. 1960년대, 발전의 욕망과 ‘부끄러움’

1960년 4월혁명으로 열렸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광장의 목소리는 경제발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욕망에 뒤덮여 사라져 갔다. 1960년대는 어떻게 하면 후진국 대한민국이 발전된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의 욕망이 그득한 시대였다. 그 결과 4월혁명 이후 커졌던 세계 약소민족들의 해방운동과 연대하자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¹² 저자에 따르면, 1963년 최인훈 소설 『회색인』의 주인공 독고준도 이러한 ‘낙차’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고민했다고 한다. “첫째 길은 ‘노예’의 환상에 충족하고 만족하는 길”이며, “둘째 길은 서양이 제시한 문제를 자체를 거부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독고준이 선택한 세 번째의

11 『조선일보』, 1965. 6. 6.

12 일례로, 1961년 5월 5일 발표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의 선언문에는 “전국의 학생동지들을 대신하여 알제리아·콩고·쿠바·라오스 및 여타의 아아·중남미에 있어서의 민족해방투쟁을 열렬히 성원하는 바이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김인걸 외 편(1998), 『한국현대사강의』, 돌베개, p. 229.

길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정지하고 주저앉는 길”이었다. 이러한 독고준의 주저앉는 방법은 “노예의 시각에서 가능한 사유의 길을 ‘궁리’하는 “사유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시금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회수될” 위험성도 있었다.¹³

이후 1967년 발표한 「충독의 소리」에서 최인훈은 “1960년대 초반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후식민성을 문제화하며, 또 다른 시간 의식을 발견”한다.¹⁴ 특히 이 소설에서 최인훈은 1930년대 선배 작가들의 소설을 가져와 ‘겹쳐 쓰는’ 방식으로 “후식민지의 역사적 경험을 현재화하며 주변 부성을 직시”함으로써, “서구와의 단계적 낙차 속에서 이해한 직선적 시간 의식에 거리를 두고, 아시아의 후진적 경험 그 자체에 기반한 새로운 시간 의식을 제안”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겹쳐 쓰기의 연원을 밝혀낸 저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최인훈이 아시아의 시간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데는 앞서 분석한 「광장」을 둘러싼 트랜스내셔널한 상호작용의 차원이 더 고려됐으면 한다. 반드시 ‘아시아’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저자가 언급했듯이 1960년대 잡지들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가 전면화되어 다뤄졌다. 즉 “최인훈은 회색인에서 독고준이 1959년 4월호 잡지 『애틀랜틱』을 통해 아프리카의 문학과 예술을 접하면서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한국인의 식민성을 성찰하도록” 했으며, “최인훈이 회색인을 연재하는 동안, 잡지 『세대』는 아시아·아프리카 탈식민 국가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95쪽). 서평자도 『회색인』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았다. 주인공 독고준은 ‘아프리카 특집’을 읽고, ‘아프리카인의 아프리카’라는 ‘새 아프리카’를 확인하고서 다음과 같이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다.¹⁵

13 장문석(2025), pp. 186-187.

14 장문석(2025), p. 188.

15 평자는 1963~64년 연재된 「회색의 의자」가 아니라, 2025년 간행된 『회색인』(문학과지성사)을 보고 인용하는 것이라, 당대에는 해당 부분이 다르게 서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혹

“어느 날 저녁녘에 독고준은 자기 방에서 달이 지난 미국 잡지 『애틀랜틱』을 읽고 있었다. 아프리카 특집인 그 호를 읽으면서 준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 거기에는 ‘새 아프리카’가 있었다. 준의 머릿속에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대체로 사자와 코끼리가 걸어다니고 흰 수렵 모자를 쓴 백인 탐험가가 총을 들고 걸어가는 앞뒤로 활과 창을 가진 토인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것은 스탠리와 리빙스턴 그리고 슈바이처와 헤밍웨이의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프리카인의 아프리카였다. 서구의 문명과 침공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자기 조종을 하고 있는, 역사 있는 전통 사회의 모습이었다. (…)준은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아프리카상은,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이었다.”¹⁶ (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

독고준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아프리카상은,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이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곧 서구의 시간 관념과 거리를 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이 서구식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시간 개념과 거리를 두며 자신의 주변부성을 깨닫고 새로운 아시아적 시간을 인식하는 과정에는 겹쳐 쓰기뿐 아니라, 이 시기 잡지와 신문을 통해 전해지던 아프리카 관련 소식들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관련하여 1967년부터 발표된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에 등장하는 한국의 지하비밀단체도 ‘프랑스 알제리전선의 자매단체’, 즉 아프리카 알제리와 연관된 조직으로 설정된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저자의 지적대로, 1960년대 최인훈은 주변부성에 입각하여 ‘아시아의 시간을 새롭게 인식’했으나, 그것이 지향하는 세계는 어떠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것은 1970년 전후부터 전개된 데탕트라는 양극적 냉전질서의 완화라는 ‘악몽’을 깨는 충격이

이 부분이 이후 수정이 진행됐다면 왜 그랬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16 최인훈(2025), 『회색인』, 문학과지성사, pp. 282-283.

필요했다.¹⁷

4. 1970년대, 약소국들의 연대와 공존을 위한 ‘중립 비동맹의 광장’

201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고,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한국 사회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중국이 공격받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으나, 적어도 지금 우리는 중국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그런데 1970년 냉전의 최전선 남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공(中共)”은 “자유세계와의 대화가 단절된 채 ‘죽(竹)의 장막’ 저편에서 문화혁명이라는 ‘홍역’까지 치른 핵(核)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존재였다.¹⁸ 그러던 중국이 미국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교류를 시작한다는 것은 당시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최인훈도 “테탕트와 연동한 동아시아와 한국의 여러 사건을 다양한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매달 발표하는 「갈대의 사계」에서 구보씨의 반응을 소설에 삽입”했다고 한다. 특히 주인공 구보는 테탕트를 “그것은 아주 고약한 악몽에서 깨었을 때의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구보는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큰 양반들의 재채기가 심하다 싶더니 끝내 우리가 감기가 들고 만 것”이며,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다고 했다. “교과서에 써어 있는 대로 역사가 걸어왔고, 신문에 나는 일만으로 하루가 이루어지는 줄만 알고 사는 민중”이 그러한 적대적이고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라는 악몽에

17 3장에서 저자는 탈냉전과 함께 등장한 최인훈의 『화두』에서 공존과 연대의 새로운 주체의 형상을 찾고 있다. 그런데 3장의 구성이 1960년대에서 갑자기 1990년대로 건너뛰기보다 『화두』를 3장 3절이 아니라 맺음말 격인 5장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래야 1960~70년대의 변화하는 시대적 맥락과 1970년대 테탕트 시기 최인훈 소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더 나은 구성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18 『조선일보』 1970. 9. 29.

서 깨어난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¹⁹

그 구체적인 형상을 담아낸 소설이 바로 1973년 『중앙일보』에 10개월 간 연재한 「태풍」이었다. 저자는 최인훈이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1973년 1월 베트남을 실제 방문함으로써 동남아시아를 ‘실감’했으며, 이것이 「태풍」이 이전과 달리 시야를 동아시아와 세계로까지 확장하는 계기였다고 제시한다. 즉 저자는 최인훈이 ‘아시아라는 보조선’을 확보하고 나서야 비로소 동아시아와 세계를 범위에 두는 소설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제시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아시아주의’의 수행적 재구성”의 사례로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1960년대 『회색인』의 “독고준은 주인과 노예, 제국과 식민지라는 문제들이 가진 문제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유하고자 하였지만 그것을 충분히 논리화하지 못했”으나, “1970년대 냉전의 완화와 함께 아시아를 발견하면서 찾을 수 있었다.”²⁰

저자는 「태풍」의 주인공 오토메나크라는 인물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 ‘에필로그’에서 “애로크(한국) 이름인 ‘김’을 합쳐서 ‘바나킴’이라는 혼종적인 이름으로 아이세노딘 사회의 민중으로 ‘부활’”했으며, 이러한 ‘바나킴’에게 ‘아시아’는 지리적 인증적 지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실천과 수행이 근거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한다.²¹ 그리고 「태풍」의 에필로그에 언급된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됐다.

“애로크가 전쟁후에 겪은 고통은, 거의 강대국의 고의적인 정책탓이었는데, 말할 것도 없이 거기서 나온 어려운 문제는 모두 애로크 자신이 앞으로도 저야 할 짐이 되고 있다.

그나마 전후 이십 년 남짓해서 애로크가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강대국

19 장문석(2025), pp. 126-128.

20 장문석(2025), pp. 352-353.

21 장문석(2025), pp. 353-354.

들의 등쌀에 시달리면서도 슬기롭게 새로운 국제질서의 본보기를 만들어 낸, 약소국들의 뭉친 힘이었다. 그런 뭉침의 숨씨를 만들어낸 고장이 아이세노딘이었다.”²²(밑줄은 인용자)

저자의 설명대로, 약소국들이 뭉쳐 만든 새로운 국제질서는 “사자로 변해 가지만 아직 사자는 아닌 상태의 양들이 슬기롭게 뭉친 세계”였다. 서평자도 분단된 ‘एको(한국)의 통일’과 ‘약소국들이 뭉쳐 만든 새로운 국제질서’가 통용되는 세계는, 아이세노딘(인도네시아) 정부의 힘이 있었고, 그것은 “중립 비동맹 외교”를 지향한 카르노스(수카르노)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에 눈길이 갔다.²³

이를 근거로 저자는 「태풍」이 “식민지와 냉전 너머의 아시아에 대한 상상, 그리고 새로운 주체의 형성 가능성과 세계사 인식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²⁴ 그러면서도 저자는 태풍이 제시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냉전의 규제성으로 인해 최인훈이 「태풍」에서 제안한 문제는 시기적으로 늦게 도착”한 것으로 평가했다. 왜냐하면 “데탕트의 국면은 이미 냉전 너머를 꿈꾸었던 ‘비동맹’의 노선이 좌절한 이후”였으며, “늦었기 때문에 그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단은 어떤 현실적 맥락을 가지기는 어려웠다”고 아쉬워했다.²⁵

그런데 이러한 저자의 평가는 1970년대 비동맹운동의 역사가 한국 학계에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물론 「태풍」에 등장하는 인도네시아의 카르노스(수카르노)는 1965년 군부 쿠데타로 물

22 해당 부분은 이후 내용상 수정은 없었다. 최인훈, 「로파그니스-30년후 ①」, 『중앙일보』 1973. 9. 29.; 최인훈(2009), 『태풍』, 문학과지성사, p. 475.

23 최인훈, 「로파그니스-30년후 ③」, 『중앙일보』 1973. 10. 13.; 최인훈(2009), pp. 487-498; 장문석(2025), p. 349.

24 장문석(2025), p. 355.

25 장문석(2025), p. 364.

러났다. 또한 1960년대 중후반 아시아 내 지역분쟁으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가 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961년 시작된 비동맹회의도 1960년대 후반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960년대 말이면 비동맹운동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리라 예견됐다. 그런데 지구적 냉전의 긴장완화와 함께, 1970년 제3차 비동맹회의가 잠비아의 루사카에서 재개됐다. 그리고 3년 후인 1973년 9월 알제리에서 제4차 회의가 열렸다. 특히 제4차 비동맹회의를 개최한 알제리는 1960년대 후반 석유수출기구(OPEC)와 아랍연맹, 77그룹(G77)의 회원국이었을 뿐 아니라 이들 기구 내에서 존경받는 국가였다. 이처럼 당시 비동맹운동의 주역은 단연 알제리였고, 이를 전 세계가 주목했다. 비동맹회의의 가입국도 알제리 회의 때 급증했으며, 이들의 유엔에서의 목소리도 커졌는데, 이는 1974년 5월, 제6차 유엔 특별총회에서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UN Resolution 3201)과 「실행 계획」(Resolution 3202)의 채택으로 이어졌다.²⁶

시기적으로도 ‘애로크의 통일’, ‘약소국들의 뭉친 힘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국제질서’, ‘카르노스의 중립 비동맹 외교’ 등이 서술된 ‘에필로그’의 13회 차 분량은, 최인훈이 제4차 알제리 비동맹회의가 열린 1973년 9월 초 이후인, 즉 1973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중앙일보』에 연재한 것이었다. 따라서 최인훈도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의 소식을 신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며, 탈식민 신생 약소국들이 비동맹회의라는 ‘공동의 광장’에 모여,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의제들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도출한 최종선언문이 발표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약소국들이 주도하는 비동맹국가들의 영향력을 확인한 직후, 「태풍」의 에필

26 1970년대 비동맹회의가 재개되고 조직과 운영 방식을 갖추며, 그것이 국제정치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는 다음 책의 4장(The Formation of the Non-Aligned Movement in the 1970s and the North-South Conflict)을 참고할 것. Jürgen Dinkel (2018), *The Non-Aligned Movement: Genesis, Organization and Politics (1927-1992)*, Alex Skinner Trans., BRILL.

로그를 집필했기 때문에, 최인훈은 당대의 비동맹운동 전개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상당히 실현 가능한 국제질서로 제시한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1975년 남한이 북한과 비동맹회의 가입을 둘러싼 외교경쟁을 벌이다가 실패한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제 1970년대 초중반 비동맹운동이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공동의 광장을 창출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그 역사가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저자는 최인훈의 「태풍」에서 제시된 연대와 공존의 국제질서를 “비동맹의 노선이 좌절한 이후”의 산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1970년대 비동맹운동의 역사가 최인훈의 소설에 어떻게 담겼는지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5. 더 많은 문학과 역사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번 서평 도서와 『태풍』의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최인훈이 당대 국제정세와 시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자신의 글 안에 오롯이 녹아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중립국행을 선택한 전쟁 포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광장」에서부터, 『회색인』 독고준의 아프리카 인식, 그리고 「태풍」에서 제시된 중립·비동맹의 약소국들이 뭉치는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상상력은 당대의 시대를 꿰뚫고 있었다. 그가 형상화한 소설 속 주인공들과 세계는 냉전·분단의 폭력적 질서를 넘어 통일과 평화 그리고 번영의 시대를 위해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강자의 편에 서거나 서구의 직선적 발전론을 따라가지 않으며, 어떻게든 약자들의 공존과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의 광장’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따라서 지구적 냉전이 끝났음에도 분단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서 그리고 이분법적 진영론과 적대성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중립의 광장에서 시작된 최인훈의 문학 작

품들은 지금 다시 읽어야 하고 더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시대와 호흡해 나간 최인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과 역사 연구자가 더 자주 만나야 하지 않을까? 서평자부터 『회색인』과 『태풍』을 읽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자료

『중앙일보』, 『조선일보』

최인훈(2025), 『회색인』, 문학과지성사.

최인훈(2009), 『태풍』, 문학과지성사.

논저

Jürgen Dinkel (2018), *The Non-Aligned Movement: Genesis, Organization and Politics (1927-1992)*, Alex Skinner Trans., BRILL.

정병준(2018), 「중립을 향한 ‘반공포로’의 투쟁: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76인의 선택과 정체성」, 『이화사학연구』 56.

김인걸 외 편(1998),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